

대선 D-3



강유진씨



샘 윤씨



프랭크 엄씨



준 최씨



김동석 씨



라이언 김씨

오바마 캠프 한인들 뿔다

2세대 중심 핵심참모에서 열성 후원자까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뚜렷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당선을 위해 뛰고 있는 한인들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오바마 대선 캠프에 직접 참여하거나 후원 조직에 참여해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 중 알려진 인물들은 5~6명 정도로 대부분 1.5세와 2세 젊은 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유진 강씨-오바마 후보 수행역 라이언 김씨-가족간 긴밀한 친분

있는 게 특징. 또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오바마 지지 활동을 벌여오고 있고 일선에서 자원봉사자로 뛰는 한인들도 많다.

이중 뉴욕·뉴저지 지역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오바마 후원회 회장으로 열성적인 지지 캠페인

을 펼치고 있는 라이언 김(32)씨가 돋보인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민 와 LA에서 성장한 김씨는 UC버클리와 뉴욕대 대학원을 나와 은행 근무를 하다 지난 2006년부터 뉴저지 지역 젊은 정치인들이 결성한 오바마 후원 모임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오바마 후보가 뉴욕 지역에 오면 차량 편의도 제공하고 가족들과도 친분을 나누는 등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오바마의 핵심 참모인 데이빗 엑셀로드나 테레스양 등과도 각별한 관계를 나누고 있어 오바마 후보가 당선 될 경우 상당한 역할을 맡을 것이 기대되고 있다.

〈2면에 계속·김종하 기자〉